

김푸른 수평선 위로 정해년(丁亥年) 첫날이 밝아온다. 어둠 속에서 밤을 지낸 사람에게 여명은 희망이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과 마주하고 있다. 사위가 깨어나고 온 누리가 밝아진다. 세상이 광명(光明)하다. 눈부신 자비광명(慈悲光明)이 내 안쪽으로 비쳐든다. 적박한 삶과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따스한 손길이 느껴진다. 선채로 합장 배례(拜禮)한다. 얼었던 가슴이 녹는 것처럼 마음에 물기가 담긴다.

'비심(悲心)이 충만하여지이다'를 염원한다. 학생법회 때, 입으로만 외우던 '사무량심(四無量心)'이 살면서 간절하게 삶의 무게에 와 실린다. 그동안 불교와 만나 많은 위로와 법문을 접했지만 역시 요체는 자신의 문제로 귀결된다. 커다란 발원이 없어진 지금, 나는 남은 생을 갈무리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희망한다.

화택(火宅)에서 빗겨나 심정이라고나 할까. 8·15와 6·25, 4·19를 거쳐 슬픈 역사의 부침(浮沈)을 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삼계(三界)는 화택(火宅)이요, 인생은 잠시 잠깐의 꿈 같고 이슬 같다는 무상감을 어찌지 못했다.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가? 세상과 결별하며 멋지게 손 흔들며 떠나는 이들의 행적을 찾아본 적이 있다. 역시 최선을 다해 열



불자 세상보기

명란자

'에세이 문학' 발행인

'완전한 삶'을 서원하며

심히 산 사람들의 행보가 쾌활하고 시원했다.

죽는 순간 '야, 참 좋다'라고 말하며 숨진 독일의 철학자 칸트나 '나보다 즐겁고 착한 생애를 지낸 인간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생애를 끝낸 소크라테스의 안심(安心)이 부럽기도 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완전히 살아 버린다는 주의를 일관했던 천재 작가 괴테. 그는 60년 가까운 세월을 <파우스트>에 매달려 있었다.

약마와의 계약으로 미남 청년이 된 파우스트는 인생의 영욕과 애유의 무의미 등을 체험한 뒤

다시 인생을 긍정하기에 이른다. 그 인생의 의미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힘껏 살아가는 그 고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두었다. 뒤에 그는 황제의 총사령관으로 요직을 두루 이행한 뒤, 제국의 해변을 봉도 받아 습지를 매립해 낙토(樂土)로 만들려고 온 힘을 쏟아 붓는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낙토를 만들면서 해일이 덮쳐와도 모두 힘을 합쳐 기를 쓰고 구명을 막는다. 백 살이 된 파우스트는 죽는 순간 이렇게 외친다.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누린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또 헤르만 헤세는 그의 대표작 <유리알 유희>에서 이타행(利他行)을 강조했다. 주인공 크네히트는 카스트리엔(國)의 명인(名人)이 되나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내고 희생과 봉사로서 최후를 마친다.

소승의 경지인 '명인'을 넘어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한 이타행으로서 인간의 구원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졌다. 결국 모든 인간은 무죄다. 그러나 용서를 하고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서와 참회와 관용과 사랑으로 인간을 감싸안은 위대한 영혼. 그에게 D. H. 로렌스는 '죄를 거쳐 예수로'라고 그의 문학정신을 요약했다.

백 마디의 기도보다 무언(無言)의 실천, 한 가지가 유용하고 더 보람있다.

남을 대할 때 자심(慈心)이, 비심(悲心)이 무량해지기를 빈다. 그리고 남을 대할 때 희심(喜心)이 사심(捨心)이 무량해지기를 서원한다.

새해 첫날 저 눈부신 태양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무언가 가슴 끝까지 사이로 축축하게 녹아 버리는 해일(海淵)이다. 나는 다시 그 앞에 반배(半拜)를 드리며 서 있다.

불자의 눈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포교' 보다 절박한 화두는 없다. 다른 종교의 공격적인 전도활동이 불교세를 위축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생활문화의 변화 속에서 종교 자체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 때문도 아니다. 포교가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의 저변에는 '원칙과 정책' '유지와 비전' 등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오늘날 불교계에서는 포교의 전형(典型)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위 '산중 불교'를 탈피하고 '도시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구호는 현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장된 시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도시화가 세속화와 혼동되고 대사회적 기능이 권력이나 계층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다. 그래서 포교라는 지상과업도 불교계 전체가 공감하는 현실문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결과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지도 못했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역사 부족한 게 오늘날의 불교계 모습이다.

하지만 '문화 포교'의 영역은 생활문화의 변화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사음악화라든가 사찰의 지역문

사찰문화강좌와 '인기'

영역 더 넓혀야 포교 수확

화축제의 구심점 역할, 인터넷 시대를 따라잡기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 웰빙 열풍 속에서 각종 받는 사찰 음식과 건강비법 등 불교가 가진 문화자원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이 마련한 각종 문화강좌도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강좌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 운동이기도 하다. 인천 용화선원의 경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7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제2, 제3의 용화선원이 계속 생겨나길 바란다. 이는 사찰의 대 사회적 기능이 바로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 포교의 꽃을 피우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사찰과 복지관의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불교교리나 신행 관련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정보화 아동교육 각종 공예 등으로 영역을 확산하고 있는 것은 포교의 새로운 전경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불교는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포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도시포교'의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문화포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산중의 고찰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포교의 저변 확대와 방법론 모색이라는 수확을 얻고 있다. 또 도시의 사찰과 복지관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깊숙한 곳에 불교의 정신을 심는데 밝은 비전을 보이고 있다.

문화는 정신의 활동과 생활양식을 축으로 한다. 정신적 충만과 생활의 안락을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포교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 불교계의 제일 과제다. 사찰 문턱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포교의 첫걸음이고 낮춰진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공간이란 점을 강조하는 바다.

이렇게 들었다

독서계획표

"세상의 온갖 경전과 소(疏) (論)을 다 통달하면, 이 때문에 깨달을 때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다시는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지혜를 무아지(無碍智)라 한다." <대집경>

미디어컨퍼스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1명은 한 해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았고,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읽는다는 비율도 35%를 넘지 않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서실태도 나을 것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간 조사한 '국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절대적인 독서 시간도 부족하지만, 독서의 질은 더욱 문제다. 대학별 도서관 순위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가깝게 읽기 좋은 일본 소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외국 소설의 인기는 식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대하소설은 대출 목록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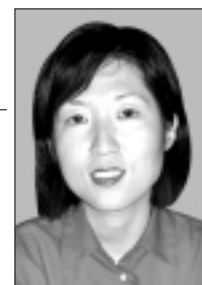
책 판매 현황을 살펴봐도, 몇몇 '팔리는 책'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서나 일부 화제의 책은 수백만 권이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 반면, 인문사, 과학 분야 신간 판매는 1000권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잘 팔리는 책'만을 양산해 내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독자층을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불자들만이라도 올 한해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여성영(취재부 기자)

본지 지난호(609호) 불자세상보기 필자 월호 스님은 '쌍계사 강원 강주'가 아닌 '쌍계사 강원 강사'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새해 이것만은...

'인재양성'이 불교의 희망, 더 많은 투자를



살아있다는 것은 흔들림의 연속인 것 같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튼튼한 뿌리를 얻는다.

지난 한해도 그러했다.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유연함을 배우는 것이 삶이라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것은 늘 설레임과 함께 막연한



불안도 동반한다.

지난한해 불교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어떤 때는 간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서서히 잊혀졌다. 그 자리는 다시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졌다.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왜 우리는 떠나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고 간절히 붙잡지도 않는 것일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런 불교계의 현실이 나는 참 가슴이 아프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불자라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것일까. 진정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일까.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모두 부처가 될 존엄한 존재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와 도반이 얼마나 빛나는 보물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올 한해 불교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큰 투자이며 불교의 희망인 것을 절절히 깨닫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둘째, 이제 사찰도 불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불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를 분석하여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사찰이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웃과 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불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불교의 희망은 사람이다. 사람만이 희망인 것이다!

이화(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Lists subjects like Buddhist Psychology, Buddhist Law, Buddhist Ethics, etc.

Table with 6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Provides details on application and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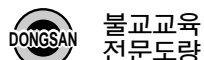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부다가이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공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12월3일 시행된 제5회 연합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Table listing successful candidates for the 5th Joint Buddhist Education Competency Evaluation Exam. Columns include University, Name, and Count.

- 등 록 기 일 : 2007년 2월 7일 까지
■ 품 수 식 : 2007년 3월 24일 ~ 25일
■ 장 소 : 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 록 및 품 수 교 육 비 : 6만원 (소속학교 일괄접수바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문의 02) 734-9595